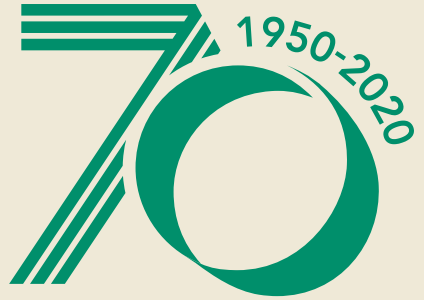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가입 70주년 기념

찾아가서 듣는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과학 활동 이야기



기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연과학 활동 이야기

06

김광호

유네스코, 과학분야의
국제교류 창구가 되다



10

이승환

한국 과학과 세계를
연결한 다리, 유네스코



20

허형택

유네스코, 한국 해양학
발전의 큰 동력



30

박용안

유네스코, 전지구적 시각으로
공동의 연구를 이끌다



40

이순탁

물은 인권의 필수 요소이자
인류 공동의 자산

찾아가서 듣는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과학 활동 이야기

인문사회과학 활동 이야기



54

이삼열

철학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다



62

권태준

유네스코의
한계와 도전



68

송상용

과학계, 윤리적 성찰에
더욱 힘써야



76

전성민

청년 사업의 핵심은
'목소리를 듣는 것'



84

정우탁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사업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미래

유네스코, 과학분야의 국제교류 창구가 되다

1945년 설립된 유네스코는 자연과학 및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국제교류와 협력 창구로서 국내 전문가들의 국제 활동과 연구를 지원해왔으며 국제 과학 이슈를 국내에 소개하는데 기여했습니다. 1960년에 설립된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는 한국 해양과학의 초석을 닦는 데 기여했으며, 1970년대에 시작된 '인간과 생물권 사업(MAB)'은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여 생물 다양성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발전의 조화를 도모해왔습니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인문사회과학 사업은 유네스코의 '자생적 발전' 개념을 기초로 한국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고, 1990년대 이후에는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관용, 인권, 평화에 대한 논의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윤리적 측면, 특히 정보, 생명, 기후변화 윤리 등에 대한 논의와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에 유네스코가 미친 영향을 재조명하고자 국내의 유네스코 활동, 특히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참여했던 여러 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활동의 역사를 담당해온 분들과 인터뷰하여 그분들의 활동이 개인의 기억을 넘어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활동 성과로 정리하고, 이를 향후 유네스코 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자연과학분야에서는 이승환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장을 만나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및 과학기술 등 과학 전반 활동 이야기를, 허형택 전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서태평양위원회(IOC/WESTPAC) 의장이자 전 한국해양연구원장을 만나 해양학 이야기를, 박용안 서울대학교 해양학과 명예교수를 만나 국제지구과학 활동 이야기를, 그리고 이순탁 영남대학교 명예교수를 만나 물 관련 활동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MAB 활동에 대해서는 MAB한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을 만나 그 결과를 별책으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전성민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협력사업본부장과 권태준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송상용 전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열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정우탁 전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원장을 만나 유네스코의 청년사업과 생명/과학기술 윤리, 철학과 역사화해를 비롯한 인문사회과학 사업의 발전 과정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소중한 결과물이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과학분야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귀한 자료들이 사라지기 전에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 광 호

자연과학 활동



한국 과학과 세계를 연결한 다리, 유네스코
이승환

한국 과학과 세계를 연결한 다리, 유네스코

이승환

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장



이승환 전 본부장은 1978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입사해 유네스코가 발간한 <과학과 사회> 한국어판 발간을 이끌었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자연과학 및 교육, 국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두루 활약했다. 그 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원의 발전에 기여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한
유네스코

1950년 6월, 한국이 유네스코에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서 유네스코를 통한 지원은 전후 교육·과학·문화 역량의 복구와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유네스코의 교과서 제작 지원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유네스코가 지원한 사업은 대부분 과학기술 분야였으며 이러한 지원은 1960년대에 집중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유네스코는 세미나, 워크숍 개최 및 연구비와 장비 제공 등을 지원했고, 이는 한국이 과학 전시회, 원자력, 기본 정보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한국도
해양과학사업에 본격 참여

유네스코 과학기술사업 중에서 해양과학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한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대표적인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한국의 정부간 해양학위원회^{OC} 참여를 위해 한국해양과학위원회(KOC, 현 한국해양학위원회)를 설립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사무국을 맡아오는 등 유네스코 해양과학사업 참여에 역할을 해왔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쿠로시오 해류 합동조사' 등 국제해양조사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과정에서 국제협력 역량 뿐 아니라 해양과학의 국내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맥락이 이후 설립된 한국해

양학회로 이어져 그 활동이 지금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개발이 한창이던
1970년대부터 환경문제에 관심,
인간과 생물권 사업(MAB) 추진

한국이 경제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시기인 1972년 9월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환경문제연구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환경 문제는 국내에서 제한되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는 데, 환경문제연구협의회는 유엔과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의 틀을 활용하여 그 논의를 보다 개방적으로 만들고 다양한 정보와 동향을 국내에 소개했습니다.

'생물권'^{Biosphere}이란 용어를 국제사회에 처음 알린 것도 유네스코입니다. 환경분야에서 유네스코의 선도적인 역할은 이후에도 계속 발전했고, 1970년 1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환경분야의 정부간 사업인 '인간과 생물권 사업'^{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MAB}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AB는 일반적으로 환경을 보전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전과 더불어 과학에 근거하는 합리적 이용을 함께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과학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이 함께 협력하는 접근방식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선도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 접근에 국제적 시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 환경생태 연구와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1981년에는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 후보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1982년

12월에 설악산이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 제겐 큰 영광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80년 MAB 한국위원회를 설립하고 2010년 이를 국립공원공단으로 이전하기까지 30년 동안 사무국을 맡아 왔을뿐만 아니라, 여전히 유네스코 MAB 관련 국제협력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BRN}의 설립과 운영도 주도했습니다.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와 함께 북한도 EABRN의 일원이기에, 이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 장백산(백두산)으로 출장을 가서 북한의 김성근 박사를 만난 것도 제겐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생물권보전지역

지정할 때의 기억

당시 생물권보전지역 신청지 후보는 한라산, 설악산, 광릉숲, 지리산 등 네 군데였습니다. 신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영국의 던컨 푸어^{Duncan Poor} 교수를 초청해 현장 조사를 함께 했습니다. 푸어 교수는 한국에 오기 전 백두산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푸어 교수가 찍어 온 백두산 사진을 받아, 당시 우리 위원회 홍보담당직원이었던 이윤희 과장이 서울신문에 전달하여, 생생하고 귀한 백두산 사진이 특종 기사로 나오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내 첫 생물권보전지역인 설악산이 1982년에 지정되고 2002년에 제주도가 두번째로 지

정될 때까지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선구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지자체 참여나 관심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변하면서 MAB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전과 발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주제인 만큼, 좀 더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1970년대 후반:

과학분야 국제협력 시작

저는 1978년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입사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맡은 일이 동남아 과학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1976년 동남아 지역 기술교육 혁신회의를 필두로, 1977년 동남아 천연물화학 워크숍 등 매년 1~2차례 천연물화학 과 미생물학 분야의 동남아 지역 연수과정과 워크숍 등을 주최했습니다. 당시 유네스코 자카르타사무소의 관장 하에 지역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안정적으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었고, 유네스코에서 중점적으로 아시아지역의 생물 자원 정보 수집에 관심이 있어 재원 조달도 풍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네트워크의 중심점으로서 자원은 많지만 연구 및 기술 능력이 부족한 인도네시아나 태국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분석 및 훈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벌였습니다. 서울대 천연물화학 연구소, 한국과학원^{KAIS} 등 국내의 역량 있는 연구기관이 참여했고, KAIS에서는 미생물의 이용에 관해 소장학자들에게 훈련과정을 제공하



(1)

- (1) MAB한국위원회 창립총회
유네스코뉴스311호(1980)
- (2) 백두산천지 사진
유네스코뉴스 345호(1981)
- (3)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
국내 워크숍(1983)
- (4) 설악산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유네스코뉴스355호(198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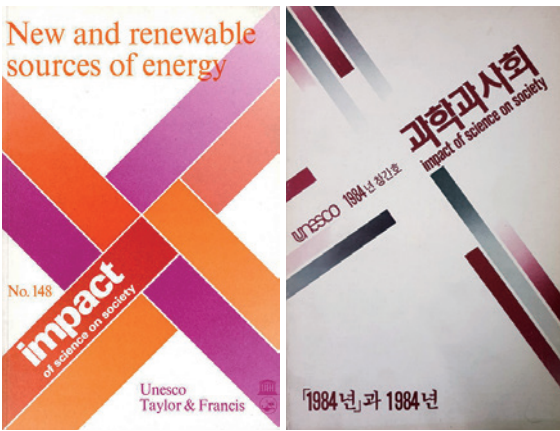
(4)



(3)



(5)



(6)



(7)

- (5) 유네스코 동남아시아 지역 천연물화학 연구과정(1980)
- (6)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1950년부터 발간한 계간지 『The Impact of Science on Society』와 1984년부터 한국에서 번역·발간된 『과학과 사회』.
- (7) 1998년에 열린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관한 합의회의'.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란 일반 시민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으로, 덴마크에서 1987년에 시행한 사례를 참고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한국에서 처음 진행했다.

고 해당 사업 수혜자들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1980년대:

과학의 사회적 역할,

다 학문과 협력에 대한 관심 증대

유네스코의 다양한 과학분야 사업 중 '과학기술과 사회'^{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STS} 사업은 유네스코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일반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STS사업은 과학에 대한 맹신보다는 다학문적, 학제적, 종합적, 통합적 접근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도 1981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협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과학기술과 사회 간의 영향과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간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바람직한 협력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 세미나에 송상용, 김영식, 박성래 교수 등이 참여했고, 박승재 교수는 국내 최초로 '대학생의 과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1984년에는 유네스코가 1950년부터 간행해 온 계간지 『Impact of Science on Society』의 한국어판을 『과학과 사회』라는 제목으로 발간했습니다. 당시 6개 유엔 공식 언어 외의 언어로는 유일하게 한국어판으로 발간된 이 책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유네스코는 정보통신

기술과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연관되어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를 성찰하고 그 대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보윤리 사업과 생명윤리사업을 통해 과학기술과 관련된 윤리문제를 다루었으며, 1997년에는 「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1998년에 국내 최초로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과 생명 윤리에 관한 합의회의'를 시도했고, 1999년에는 '생명복제기술'을 주제로 시민합의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의 민주화로 향하는 새로운 모색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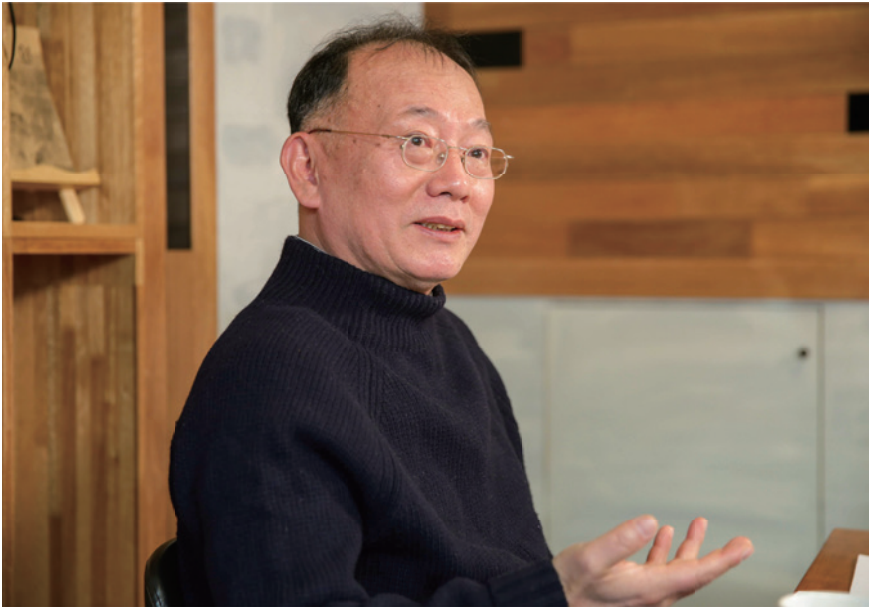
유네스코가 한국에 주는 의미

한마디로 한국에 유네스코는 세계로 향한 중요한 창이었습니다. 한국전쟁과 그 후 이어진 분단체제라는 특수한 여건 하에서 유네스코는 한국에 국제적이고 균형된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도 유네스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후에도 유네스코는 한국 과학계에 영향을 주는 여러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 왔습니다. 경제개발에 매진하던 시기에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고,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한 과학인가?', '누구를 위한 기술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고민하게 된 데도 유네스코의 역할이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과학 발전을 통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함께한 70년과 앞으로 활동

유네스코는 항상 사회적 의제를 이끌어 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의제를 따라가면서 점차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STS를 비롯해 평생교육, 기능문화 등은 모두 유네스코가 시작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탈퇴 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유네스코의 역량은 회원국들에게 전문성을 제공하고 선도해왔던 과거에 비해 위축되었음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고유의 가치는 유효하고, 여러 분야를

융통성 있게 다룰 수 있다는 유네스코만의 강점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가 선정한 의제들, 유네스코가 만든 개념을 우리에게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하고,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과 생물권 사업

(MAB: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인간과 생물권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지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학문적인 연구와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의 정부간 과학 사업 중 하나다. 유네스코는 1971년, 자연의 경고에 대해 일찍이 경각심으로 가지고 인간과 생물권 사업(MAB)을 시작했고, 자연보전뿐만 아니라 그 곳에 살고있는 사람까지 고려하는 '생물권'이라는 용어를 국제사회에 처음 도입했다.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육상,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이다. 산업화와 발전이 강조되던 1970년대에 유네스코는 자연보전과 더불어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생물권보전지역 제도를 만들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곳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학습장'이라고 불린다. 생물권보전지역은 보전, 발전, 지원 등 3가지 기능을 지니며,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 3가지 용도구역(핵심, 완충, 협력)을 설정하고 있다.

MAB한국위원회



MAB 사업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국내에 도입, 발전시키기 위해 MAB한국위원회가 1980년 6월 설립되었다. 그리고 MAB한국위원회의 효과적 운영 및 활동 강화를 위해 2010년 1월에는 MAB 한국위원회 사무국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환경부 훈령에 따라 국립공립공단으로 이전하였다.



유네스코, 한국 해양학 발전의 큰 동력
허형택

유네스코, 한국 해양학 발전의 큰 동력

허형택

전 IOC/WESTPAC 의장, 전 한국해양연구원장



허형택 박사는 1961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입사해 과학담당 간사로서 국내 해양학자의 발굴과 역량강화, 한국해양학회 창설을 이끌었고, IOC 서태평양위원회(IOC/WESTPAC) 의장 및 한국해양연구원(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의 해양과학 발전에 기여했다.

유네스코의 해양학 전담기구인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에 참여

1960년 창설된 정부간해양학위원회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에 우리나라가 1961년 7월에 가입하면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IOC의 국내 기구인 한국해양과학위원회(KOC, 현 한국해양학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KOC는 당시 해양학 불모지에 불과했던 국내에 해양학을 도입·발전시키기 위해 해양 관련 인재를 발굴하고 IOC 훈련과정, 세미나, 심포지움을 통해 이들의 역량 강화를 돕는 한편, 정책 및 학술분야의 국제회의의 참여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해양’이라는 말조차 낯선 당시 국내 실정에서 해양 관련 학자나 전문가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국립수산진흥원과 부산수산대학(현 부경대학교)에서도 주로 어류나 수산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하는 정도에 그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따라서 제가 1961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과학담당 간사로서 처음 했던 일이 국내 해양 관련 학자들의 명단을 만들고, 그중 KOC가 선발한 후보자가 해양학 훈련과정, 심포지움, 국제회의 등에 참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KOC는 1965년부터 1970년까지 진행된 쿠로시오 해류 국제 공동조사¹Cooperative Study of Kuroshio and Adjacent Regions, CSK에 국내 학자들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던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내 해양학자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한 KOC는 1965년에 한국해양학회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듬해 7월 한국해양학회를 창립했습니다. 해양

학회 창립 이후인 1968년에야 서울대학교에 국내 최초의 해양학자가 설치돼 해양전문가 양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 마디로 당시 불모지라도 같은 국내 실정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한국 해양과학의 모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해양과학 사업이 중요하게 다뤄진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가 해양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 큰 배경이었습니다. 고갈되는 육상자원을 대체하기 위해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환경을 보전 관리하며 기후변화를 예측 조절하기 위해 국제적인 해양탐사 연구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지요. 유네스코는 처음에 해양과학²Marine Science Division을 두어 해양탐사사업을 시작해 세계 5대양 국제탐사 및 관측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해 IOC라는 기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2차대전 당시 군사 목적으로 개발됐던 잠수정, 음파탐지, 해양관측 및 해저탐사 기술 등을 해양관측 탐사에 적극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해양 개발을 하는 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이처럼 해양학 연구와 관련한 수요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해양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해양과학 전공하여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

부산수산대학교에서 해양생물학을 전



- (1) 한국해양학회 창립총회(1966)
- (2) 한국해양학회 창립총회(1966) 단체사진
- (3) 범세계적 해양오염 조사연구 관련 기사 유네스코뉴스122호(1972)

(1)



(2)

범 세계적 해양오염 조사연구

— IOC 제7차 총회에서 결정

「다니엘 버만」

유네스코 「베리」 본부에서 제 7차회의를 마친 「일부인 해양 오염에 대한 범세계적 조사연구」에 관한 중요성으로 채택되며, 이 조사연구를 「이탈리아」의 「산 마르코다 카스타넬라베리」와 「프랑스」에서 각각 1년간에 걸쳐 실시된 일련의 회의에 참가할

전문가들의 일련의 기업을 두고 있다. 당시의 회의에서 환경오염 관련 전문가들은 「유네스코」의 「베리」 본부에서 실시할 예정인 일련의 회의에 참가할 예정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그들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정면이 확장되었는 한, 생물체적인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 고의 소탕이 주변환경에

무관한 가속적 「페이스」로 실시 이용될 것이 확실시 된다. 과거 수십년 동안 우리는 이같은 원해 우려를 했으나 타카오는 시비만 이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회의는 세계에서 두가지의 추이가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일층 증가시킬 것이다. 즉 인구문제와 고도로 밀집되는 중상 산업이 연안지역에서 더욱 확대됨으로써, 소량의 상사

생성 불가피하게 된다. 일차적으로 폐석과 암산자원에 대한 오염을 방지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공약이나 기부의 산출에 의해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해양의 상태가 악화하여도 인간의 영향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알 수가 없다. 몇몇 국가들이 현재 「IOC」에서 정한 「유네스코」의 「베리」 본부에서 실시할 예정인 일련의 회의에 참가할 예정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그들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1971년 1980년의 「국제해양학사」에 의해 이루어질 「IOC」의 증가 지원의 일부이다.

한편 「IOC」는 제7차 회의에서 「베리」 본부에서 「일부인 해양 오염에 대한 범세계적 조사연구」에 관한 중요성으로 채택되며, 이 조사연구를 「이탈리아」의 「산 마르코다 카스타넬라베리」와 「프랑스」에서 각각 1년간에 걸쳐 실시된 일련의 회의에 참가할

(3)

24

찾아가서 듣는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과학 활동 이야기

공하고 수산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저에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는 유네스코 해양과학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과학분야 전문가를 찾고 있었으니까요. 그 연락을 받은 뒤 우선 부산에서 영어학원을 다니며 영어공부를 했고, 서울에 와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위에 입사하게 되어 5년 정도 근무한 뒤 1966년부터 1978년까지 유학을 했습니다. 그 시작은 1966년에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3개월간 덴마크에서 개도국 해양학자 연수훈련과정에 참가한 것이었습니다. 이 연수가 저에겐 큰 전환점이었고, 이런 기회를 준 유네스코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IOC 활동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IOC 활동에 대한 기억이 많습니다. 저는 IOC 총회 및 집행이사회에 1982년부터 2008년까지 26년 동안 매년 참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나라 대표들을 잘 알게 되었고 좋은 관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1993년 IOC 집행이사회에 참석했을 때의 기억은 특히나 남다른데, 당시 IOC 회원국 160여 개국 중에서 30여 개국을 집행이사국으로 뽑는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집행이사국이 되었습니다. 당시 동남아의 국가들과 이란, 인도, 북한도 후보로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는 30표 이상을 얻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연속으로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해양과학은 ‘한강의 기

적’으로 불리는 경제발전에 비견할 만큼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도 큰 추억입니다. 1960년대 초 KOC 설리로 해양학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국내 해양학자들은 석·박사학위 과정과 전문가 훈련을 미국 등 해양선진국에서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말부터 한국은 동남아 등 개도국 젊은 해양과학자들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해양기술 이전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인력과 조사선, 연구 장비 등 시설면에서 명실공히 세계 상위의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제 한국 해양학자들이 IOC, WESTPAC, PICES(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 등 국제기구의 의장으로 선출되는 등 한국은 해양학 분야 국제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해양과학 발전사에

유네스코의 역할과 기여

유네스코는 황무지에 불과했던 한국의 열악한 지평 위에 해양학의 씨를 뿌리고 가꾼 후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네스코의 독려로 우리나라는 매우 열악한 연구여건과 일천한 경험 등에도 불구하고 1965년부터 5년간 이어진 쿠로시오 국제공동조사^{CSK}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선진 해양연구 방법 및 연구 기술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의 꾸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도 학자 훈련 및 양성, 학회 설립 등에 더 큰 박차를 가할 수 있었고, 100년 정도의 역사가 있는 해양학 분야에서 우리나라

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단기간 내에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해양과학은 지난 50년간 명실공히 세계 상위권으로 발전했습니다.

연구기술분야에 있어서는 개도국 젊은 해양과학자들을 초청하여 중단기 해양과학 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술 수출, 즉 공여국으로 도약했으며, 장비나 조사선 등 시설분야에 있어서는 대형 첨단해양조사선, 예를 들면 1420톤의 온누리호, 5900톤의 이사부호, 7500톤의 아라온호 등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조사 영역이나 범위에 있어서도 연안이나 연근해 조사에서 그쳤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5대양을 포함한 세계 전 해역, 남·북극해 조사를 비롯해 천해에서 수심 1만 미터 이상 심해에 이르기까지 탐사 가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유네스코가 함께해 온 70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세상이 변하면서 각 분야마다 전문적인 기구들이 생기니 우리가 할 역할은 점점 줄어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네스코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구로서의 역량을 펼치는 데도 예전에 비해서 어려움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나라 해양과학 시스템 및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원조 및 공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를 통해 해양과학의 발전을 이룩했듯, 우리나라도 해양과학 발전에 대한 수요가 있는 개도국에 같은 방식

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해양에 둘러싸인 자연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일구어 낸 한국은 해양수산부를 독립된 부처로 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받은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한국은 2019년 기준 100억 원이 넘는 해양수산분야 ODA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군소도서국의 해양개발, 환경보전,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유네스코를 통해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개도국들의 해양인력 개발과 역량강화 및 연구시스템 개발 지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IOC 사업 활성화에도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적인 위상도 높이고 우리가 세계의 바다에 진출하는 창구도 더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 1965년에 열린 '쿠로시오 조사'를 위한 해양과학 심포지움' 현장 모습. 유네스코의 도움으로 참여한 이 사업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은 한국이 해양학 분야에서 본격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5) 한국해양학회 창립 10주년기념 해양과학 심포지움 개최 관련 기사 유네스코뉴스107호(1971)



(4)



(5)

세계해양학 발전의 산 증거

◇창립 25주년 맞은 해양과학위(IOC)◇

세계의 과학계는 뛰어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1985년 창립 25주년 기념 회담에서 유네스코 해양과학위원회(IOC)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세계해양학 발전의 산 증거로 평가되는 1985년의 10년간 해양학 연구의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 회의는 1985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유네스코 해양과학위원회(IOC)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세계해양학 발전의 산 증거로 평가되는 1985년의 10년간 해양학 연구의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 회의는 1985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렸다.

20년전 상상못한 해양학과 기상학의협력 가능
해양 환경 오염의 감지 기능이 새로운 과제
유네스코 말피에보, 불구 미국의 IOC활동 계속할

IOC는 1985년 창립 25주년을 맞아 세계해양학 발전의 산 증거로 평가되는 1985년의 10년간 해양학 연구의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 회의는 1985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렸다.



말피에보의 해양과학위 10주년 기념회담

IOC는 1985년 창립 25주년을 맞아 세계해양학 발전의 산 증거로 평가되는 1985년의 10년간 해양학 연구의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이 회의는 1985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렸다.

(6)



정부간해양학위원회

(IOC: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1960년에 열린 제11차 총회에서 유네스코는 해양과학 관련 연구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를 창설했다.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바다를 보호하고,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IOC는 UN의 해양 분야 기구로 유네스코에서 196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IOC는 유네스코에 속해 있지만 '기능적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유네스코 회원국과 별도로 자체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회와 집행이사회를 열어 활동전략과 사업실행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다. IOC는 현재 유엔 산하 유일한 해양과학 전담기구로서 국가별 해양과학 연구 및 관측 역량, 제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세계해양과학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양 분야에서 국가간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해양학위원회

(KOC: Korea Oceanographic Commission)



한국해양학위원회는 1961년 7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설치, 해양과학 분야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되어 IOC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한국해양학 발전을 도모하고자 창립되었다. 현재는 해양수산부 훈령으로 설치되어 정부 및 국내 관련기관과 학계를 연계하여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국제기구 및 관련 프로그램 참여시에 반영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제기구를 연계한 기술이전 및 역량강화 사업 등 해양과학연구의 선진화, 국제화 달성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유네스코, 전지구적 시각으로 공동의 연구를 이끌다
박용안

유네스코, 전지구적 시각으로 공동의 연구를 이끈다

박용안

서울대 해양학과 명예교수, IGCP 한국위원회 명예위원장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는 2002년까지 서울대 해양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한국해양학회 회장을 역임한 한국해양학계의 원로로, 2006년 대한민국학술원상과 2009년 몽골과학원 쿠빌라이칸 훈장을 받은 바 있다. IGCP한국위원회 명예위원장,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의장을 역임하는 등 대한민국 지구과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해양학과 IOC 활동

1960년대에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서 지원을 해주어 서울대학교 해양학과 졸업생들이 프랑스로 가서 해양물리, 해양화학, 생물지리 등 분야별로 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졸업을 한 학생 중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위원장을 역임한 변상경 박사도 있었어요. 이런 학생들이 한국해양연구원^{KORDI}에 입사하고 해양 학회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해양학 관련 연구 기관은 KORDI밖에 없었지만 그 후에 많은 기관들이 설립되었고, 이에 대한 저의 기여도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해양지질학을 전공했기에 처음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학과 지질학 교수로 임용되었고, 그 이후에 해양학과가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에 창설된 후 최초의 해양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IOC 총회에도 꾸준히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IOC 총회에 참석한 것은 1975년이었는데,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우리나라 학자들보다는 프랑스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대표로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IGCP)에 참여

저의 은사이신 지질학과 정창희* 교수님께서 IGCP한국위원회 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경북대학교 장기홍 교수께서 이어서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 주자로 제가 추천을 받아 오랫동안 IGCP 한국위원회 대표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용일 교수

에게 역할을 물려준 상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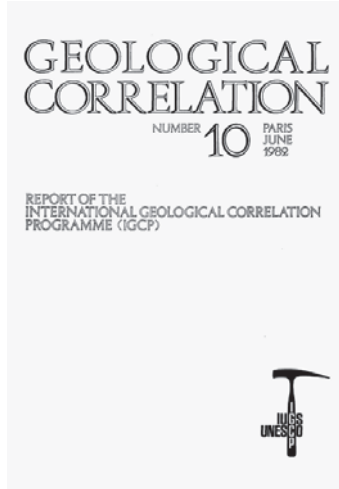
<정창희 서울대 명예교수>

정창희 교수는 탄광 지역 지층 연구로 석탄 자원 확보에 기여한 지질학자이자, 평안누층군 층서 정립으로 한반도 고생대 지질 기록 해석에 이바지했으며, 국내 최초 <지질학개론>을 출간하며 학문 발전에 공헌하기도 했다. 또, 정창희 교수가 진행했던 고생대 석회암 연구는 우리나라 석회석 광산의 발전으로 이어졌는데, 후에 제자들이 그의 연구를 이어받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함으로써 국가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정창희 교수는 대한 지질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계 발전을 이끌었고, 유네스코와 국제지질연맹(IUGS)의 국제지질대비프로그램IGCP한국위원회 위원장(현재 IGCP한국위원회)을 맡으며 한국 지질학계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IGCP의 주요 활동과

우리나라의 참여 현황

현재까지 15개의 IGCP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관여했고, 저는 그중에서도 IGCP 이사회와 연구에 참여한 최초의 대표였습니다. IGCP 프로젝트 구성 중 중요한 부분이 지역 대표^{Regional Coordinator}가 있다는 것이며, 지역 대표는 유네스코 IGCP에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하고 연간 회의를 주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IGCP 프로젝트의 경우, 전 세계에서 어떤 지질학자가 테마를 정해 주제를 제안하고 IGCP로부터 프



(1)

- (1)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 제 10차 보고서(1982) 표지
- (2) 지구과학분야 지역협력에 관한 동남아 회의(1977)
- (3) 동남아 지질연도 측정에 관한 워크숍(1980)



(2)



(3)

로젝트를 승인받게 되면, 매년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연구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유네스코에서의 재정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연간 회의를 주최하는 국가에서 행사 재정을 지원하곤 합니다. 당시에는 미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활발히 개최하였고, 우리나라는 주최를 하기엔 관심과 재정이 부족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수들은 여러 나라가 함께 하는 공동 연구에 참여해 왔습니다.

제가 최초로 참여한 연구는 1973년부터 1985년까지 코넬 대학 볼룸 교수와 프랑스 해양연구소 피아존 교수가 진행했던 ‘해수면 운동’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본 연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빙하기가 끝나고 간빙하기로 가는 사이의 시기를 LGM(17,500년 전)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동해, 서해, 남해 등 주요 바다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해수면이 142m씩 내려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해안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동해가 사실은 하나의 호수였다는 것, 그리고 일본과 한국, 한국과 중국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현재 저의 제자인 강원대 정대교 교수 또한 2023년까지 백악기층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산도에 가면 고속도로에서도 보이는 빨간색의 사암, 셰일 등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백악기층이라는 중생대층입니다. 이 층은 호수 층인데, 굉장히 큰 호수에 습지가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지에 공룡이 서식하곤 했습니다.

IGCP의 중요성

IGCP 프로젝트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연구에 대한 지구적 시각^{global vision for research}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지질학 연구를 하되, 육상이나 해저든 간에 ‘global vision’으로, 전 지구적인 관점으로 그 비전을 각 나라의 학자들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IGCP는 International Geological Correlation Programme의 준말이었고, 여기서 ‘correlation’이라는 것이 ‘대비’라는 뜻으로, 이 프로그램의 지구적인 관점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대륙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지질 현상을 대비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프로그램명에 ‘correlation’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IGCP를 통해 48년 동안 약 65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여기에 150개 국가에서 과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2020년에는 24개의 현재진행형 프로젝트와 18개의 신규 프로젝트, 포함 42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IGCP가 중요한 이유는,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지질학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공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정 층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지만 과거에는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었기에 중국 지질과의 연계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질은 매우 달라서 서로에게 없는 지질 현상을 관찰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활화산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우



(3)

- (3) 동남아 지질연도
측정에 관한 워크숍(1980)
- (4) 유네스코 동남아시아
석탄지질학 워크숍(1983)



(4)

리나라 지질학과 학생들과 일본의 아소 화산으로 간 적이 있어요. 또, 반대로 일본 지질학과 학생들은 일본에는 중생대 이후의 층만 있기에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층을 관찰하기 위해 우리나라 태백산 지역에 많이 옵니다. 정선 탄광이나 사동층에 찾아와 과거 2억 4천만 년 전에 해변가에 쌓인 퇴적층을 보러 오는 것이지요.

IGCP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의 과학자들은 상호 지식을 교환하고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매년 프로젝트 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르도비스기 생물 다양성, 삼엽충이 어떻게 나오고 어떤 종이 발견되었는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매년 회의를 통해 마련합니다. IGCP 이름에 correlation이 들어

간 것은 그것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또한 서로 교환하고 대비하는 것을 중요한 축으로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유네스코에서 공동의 '연구'를 지향하는 주요 분야는 IGCP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IGCP의 성과와 의미

유네스코가 왜 초창기부터 지질학 연구를 강조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는 과학 협력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선 탄광이라던지, 또 사동층의 사암이라던지 이런 것은 일본에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중국에는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지층과 중국의 지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또, 미국 쪽에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석탄이 나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렇게 석탄이 나오는 지층을 펜실베니아층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사동층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도 자체만 지리학적으로 공부하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후를 해석한다면지, 지구의 모양이라든지, 지금 한반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을 알아볼 때 IGCP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참여했던 대륙붕 연구의 경우, 해수면의 변화 연구를 통해 자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해수면이 145m가량 내려가면 오늘날의 대륙붕은 모두 육지였다고 간주할 수 있고, 이런 변화를 통해 간빙기와 빙하기의 기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간빙하기에 있는데 앞으로 빙하기가 또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언제 올지 예측하는 데에는 이러한 공동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IGCP의 성과와 의미를 꼽자면, 초창기에 유네스코가 이렇게 지질 연구를 지원하고, 특히 개도국 학자들이 꼭 참여하도록 독려했던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엔 우리나라도 개도국이었기에 특히 그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IGCP를 통해 국내 학자들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지질학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지질학자들과 지질학계의 역량도 커졌고 교류도 활발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네스코가 가진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미국 탈퇴 등으로 인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네스코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IGCP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

1967년부터 IGCP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수면, 빙하기 등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이 제일 좋은 연구지라서 이곳을 연구하게 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파이프를 갯벌 위에 박아서 원시적으로 시추를 했습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이 설립되기도 전에 그 자리에 4-50m 뿔층의 물을 빼내고 변성암층 위에 파이프를 직접 박고 야외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이 지질학적으로 기여한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5.16 때 병역 미필자 중 지질학을 공부하는 경우 군 면제를 시켜주는 대신 태백산 지질도 제작을 위한 조사를 시켰습니다. 태백산에 석탄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5년 정도 조사를 하면서 거의 300년은 쓸 수 있는 석회암층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석회석, 말하자면 시멘트 공장이 설립될 수 있었고 시멘트를 수입해오는 국가에서 수출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건설업이 발전하게 된 데에는 그 근간인 질 좋은 국산 시멘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IGCP가 국내 지구과학 분야에

미친 영향과 역할

IGCP는 무엇보다도 백악기층 관련 연구에 기여했습니다. 백악기층은 우리나라에서 육성층-바다가 아니고 육지에서 생긴 호수층인데, 공룡 발자국의 발견도 IGCP 프로젝트가 활성화됨에 따라 알게 된 사실입니다. 공룡 발자국에

대한 백악기층에서의 세계적인 비교가 이루어져서 보다 자세히 연구할 수 있게 된 점이 국내에 미친 가장 대표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최덕근 교수 또한 연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삼영층이 오르도비스기 때 북반구에서 어떻게 바다에서 연결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질학자들 사이에서 IGCP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재원이 부족하고, 또 국제적 감각으로 논문 교류를 안 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지질학과'와 '해양학과'가 아닌 대체로 '지구 환경 과학부'라고 학부 단위로 있는데 이 때문에 소속감이나 전문성이 떨어져 후학 양성이 어려워진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모든 연구의 중심체라고 할 수 있는데, 학부를 소홀히 하다 보니 대학원 학생도 줄어들었습니다. 학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실 해양지질학은 배를 타고 나가서 직접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유로 비인기 과목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양지질학 전공자 확보가 어려우니, 관심도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지구과학, 지질학 분야에서 앞으로 유네스코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세계지질공원에 관여하고 있는 한국의 학자들은 이용일, 정대교, 손영관, 우경식, 윤석훈 교수 등이 있습니다. 모두 저의 제자들인

데, 이 중에서도 우경식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는 저의 추천으로 석회암 및 동굴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Nature지에도 논문이 실린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습니다. IGCP와 관련한 일을 해 온 교수들은 이용일, 최덕근, 김정환, 백인성, 정대교 교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네스코 지구과학 사업에 전문가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IGCP 프로젝트 공모에 우리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IGCP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IGCP와 한국의 연결 고리인 IGCP한국위원회의 활성화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학회, 지질학회가 공동으로 IGCP에 참여했던 교수들과 함께 회의를 개최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질학자들이 많이 관심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제주개발공사(JPDC)에서 유네스코에 2018년부터 5년간 50만 불의 신탁기금을 내고 있고, 지질자원연구원의 김용제 박사가 IGCP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한국은 IGCP에 다양한 방면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여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위상과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유네스코 국제지구과학프로그램
(IGCP: International Geoscience Programme)



유네스코는 지구과학분야의 연구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주력사업으로 국제 지구과학프로그램(International Geoscience Programme, IGCP)과 유네스코 유네스코 국제지구 과학지질공원프로그램(UNESCO Global Geoparks, UGGp)이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이 통합되어 세계지질공원 프로그램(International Geoscience and Geoparks Programme, IGGP)이라 한다.

유네스코 IGCP는 유네스코가 국제지질연맹(IUGS)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1972년부터 시작된 국제 연구 협력 프로그램이다. IGCP는 자원 고갈 및 환경 파괴, 자연재해 예방 및 방지, 기후 변화 대응 등 우리의 행성인 지구에서 발생하는 지질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지구과학자들의 네트워크 및 국제 연구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리지질, 생태, 해양, 대기, 생물 등 지구 환경 생태 보전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의 지구과학적 기술과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 가능 발전을 이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5개 지구과학 분야 : 지질 자원, 지구 환경 변화, 지질 재해, 수리지질, 지구역학





물은 인권의 필수 요소이자 인류 공동의 자산
이순탁

물은 인권의 필수 요소이자 인류 공동의 자산

이순탁

영남대 건설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석좌교수, IHP한국위원회 명예위원장



이순탁 영남대 석좌교수는 우리나라의 IHP 연구조사 사업과 이와 관련된 국제적인 활동을 197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우리나라의 IHP 대표학자로, 유엔수자원회의의(UNWC)한국대표, 유네스코, 세계기상기구(WMO) 등 각종 수자원관련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여하는 등 그 동안 범세계적 IHP활동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IHP 정부간위원회 의장을 역임하고, 우리나라의 물분야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인 i-WSSM 설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IHP에 참여한 계기

IHP는 1975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 전에 1965년부터 1975년까지는 국제 수문 10개년 계획^{IHD, International Hydrological Decade}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IHD 때부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로 따지면, IHP와 관계한 것이 총 43년이네요. 이 평생을 IHP와 연관 지어 온 인연이 있습니다.

IHD를 할 때 시험 유역이 세 군데 있었는데, 이때 수자원 학회에서 시험 유역 연구를 하는 연구팀으로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건설부였던 국토부에 IHD 국내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제가 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1975년에 유네스코에서 IHD가 IHP^{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로 전환이 되면서 IHP가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 IHP 국내위원회가 구성되고, 역시 수자원 학회를 대표해서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IHP와 연관을 가지게 된 인연입니다.

또 매년 건설부, 그다음 국토부, 지금은 환경부가 수자원학회에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해서, IHP가 되면서도 3개 시험 유역을 다시 선정했어요. 한강 유역의 대표 유역으로 평창강 유역, 낙동강 유역에서는 위천 유역, 금강 유역에서는 보청천 유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전에 IHD에서는 낙동강 유역에서는 신천 유역이 대표 시험 유역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험 유역 연구와 관리에 있어 낙동강 유역은 제가 책임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맺게 된 관계가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1964년에 유네스코 총회 의결을 통해 IHP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세계 각국의 유

네스코 회원국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그 속에 수자원 개발 관리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다 보니 IHP 사업을 적극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국가에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IHP에서 'Hydrological'은 수문학, 수자원, 물에 관한 모든 것의 학문이 총괄된 것입니다.

일반인에게 낯선 '수문학'

한국 대학에서는 수자원 과학이 하천공학 속에 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966년에 영국 뉴캐슬 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영국에서는 수자원 및 물에 관한 것은 'Hydrology'라는 특별 학문 코스가 있었고, 상수도 및 하수도 수질에 관한 것은 'Public Health Engineering'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학문 즉, Hydrology와 Public Health Engineering 프로그램을 합쳐서 '수자원' 과정이라고 불렀고, 저는 이 중에서도 Hydrology Graduate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Hydrology라는 것이 그 체계가 시작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물론 하천공학이라는 학문 속에 Hydrology 분야들을 다루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었지요. 한국에서는 나중에 이 Hydrology를 '수문학'이라고 번역하게 되며, 이는 물에 관한 모든 학문을 의미합니다. 그때부터 저도 Hydrology, 수문학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단, 용어가 조금 낯설기에 다른 조금 쉬운 언어로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참석했던 IHP 회의

1981년에 참석한 유네스코 IHP 정부간이사회가 제가 처음 참석한 회의입니다. 제가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3-4년 있다가 1980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다시 대학으로 복귀를 했을 때인데, 저와 국토부 국장급 한 분, 이렇게 둘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IHP 정부간이사회 이사국이 아니었는데, 저희 둘이 가서 보니 북한이 이미 이사국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진출이 매우 늦다는 것을 깨닫고,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에 한국도 이사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 귀국 후에도 건설부와 외무부에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외무부에서 유네스코 과학 프로그램에서의 한국의 참여 중 물의 우선 순위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1981년에 참석했던 회의는 저에게 이렇게 IHP에 참석을 해서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2004년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사국이 되었으며, 그 뒤부터는 한국이 계속 이사국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1981년 이후로도 저는 계속 IHP 정부간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회 개최 시에는 개최일 전후로 국제회의를 전문 심포지엄처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심포지엄에도 참석하고, 정부간이사회에서 주관하는 회의들도 참석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78년과 79년에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러시아(당시 소련) 레닌그라드에서 IHP 국제회의를 개최했는데, 미국에서 USSR 비

자를 받아서 혼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참석하면서 한국 대표로서 유네스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 분야에 왜 국제 협력이 필요할까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생명의 가장 필수 요소이잖습니까? 과거에는 물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만, 세계 곳곳에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물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국가들에서 물을 굉장히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물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지만 어떤 지역은 물이 없어서 생명을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중동 사막 지역에서는 물이 귀한 반면 아시아 지역 일부에서는 매년 태풍이나 아주 심한 호우가 내려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물이 없어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물이 너무 많아서, 홍수 등의 재해로 인명 및 재산 손실이 있기도 해 전 세계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물을 보존, 관리, 개발하고 물을 서로 나누어 쓰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1964년에 IHD를 하나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점차 유엔에서 '물에 대한 인권(The Right to Water)'을 인권 실현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보며, 인간이 존엄성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았습니다.



(1) 국제수문개발
10주년 사업 기념우표(1967)

(1)

특히, 2010년 7월 유엔 총회에서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권(Human Right to Water and Sanitation)'을 인간다운 삶의 향유와 모든 인권에 필수적인 요소로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특히 아프리카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의 물과 위생을 최우선순위 분야로 삼고 있습니다. 아태 지역에서는 태풍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이 유네스코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돼서 국가적인 협력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HP를 통한 남북한 협력의 가능성

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

으로 북한에 협력을 제안해왔습니다. 임진강의 경우, 우리가 북한에 유역 공동 사용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고, IHP를 통해서 북한 대표를 만났을 때 같이 서로 길을 나누자는 의논도 하곤 했습니다. 북한이 북한강 상류를 막아 금강산 댐을 건설하면서 한국은 '평화의 댐'을 만들어 대처를 하기도 했지만, 서로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함께 협력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물에 대한 투자는 도로 등 다른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만,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생명을 보존하고 좋은 물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은 꼭 국가에서 인식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물은 이제 모두의 공동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물 위원회(World Water Council) 등에서도 언급하고 있듯, 물은 하나의 정책 분야로 다루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권이나 정치 체계와는 상관없이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9단계를 앞두고 있는

IHP의 주요 활동분야의 변화

1965년부터 1974년까지는 국제수문개발 10개년계획(International Hydrological Decade, IHD)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시험 유역, 홍수, 물 수지(water balance) 등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수문 분야 기술 개발에 주력하였습니다. 1974년에 IHD가 종료됨에 따라 유네스코는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관리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의 수문 개발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이를 연구 사업인 IHP로 전환시켜 오늘날까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6년 혹은 8년 단위의 단계(phase)로 나누어 진행해 왔습니다. 초창기였던 IHP 1단계 사업(1975 ~ 1980년, 6년)에서는 물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주로 했습니다. IHP 2, 3 단계 사업(1982 ~ 1989년, 8년)에서는 대표 시험 유역 조사, 수자원 연구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IHP 4단계 사업(1990 ~ 1995년, 6년) 및 IHP 5단계 사업(1996 ~ 2001년, 6년)에서는 취약한 환경에 따른 수문 및 수자원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IHP 6단계 사업(2002 ~ 2007년, 6년)에서는 물 위험 및 위기에 대한 물의 상호작용 및 도전 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IHP 7단

계 사업(2008 ~ 2013년, 6년)에서는 물의 존, 압박과 사회적 대응에 대한 시스템 분석을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IHP 8단계 사업(2014 ~ 2021년, 8년)은 내년까지 진행되는 단계로, 물 안보 강화가 주된 주제입니다. 이 8단계 전략계획을 세울 때가 제가 정부 간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터라, 제가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인수를 받았을 때는 물 부족(water scarcity)으로 주제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는 전임 의장이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물 부족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러나 세계의 반은 물이 너무 풍부해서, 홍수 등으로 피해를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에 대해서는 물을 얻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것, 그리고 물로부터의 재해를 방지하는 것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 ‘물 안보’였고, 제가 이 주제를 단계 주제로 추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강조했던 이 물 안보라는 개념이 이후 유엔에서도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뿌듯함을 느끼고 한국이 만들어 낸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유네스코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연구교육센터

(i-WSSM: International Centre for Water Secur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유네스코 물 안보 및 지속가능 물 관리 국제연구교육센터 설립에 대한 저의 기여도



(2)

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소속되는 카테고리 2 센터가 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 하 독립 센터의 형태로 설립되었습니다. 단, 수자원 기본법 등이 적용이 될 수 없어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법 확립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에 물재해위기관리센터^{ICHARM}이 있어 분야가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처음에 일본에서 i-WSSM의 설립 승인을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ICHARM에서 다루는 것은 물 위험, 재해 등이며, i-WSSM에서 다루고자 하는 ‘물 안보와 지속 가능 물 관리’는 새로운 개념임을 들어 항의를 했고, 이 덕분에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i-WSSM은 이 두 주제

에 있어서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제 센터입니다. 관련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및 연구 등이 보강이 되어 세계적으로 저명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i-WSSM의 앞으로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IHP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2010년 제19차 IHP 정부간이사회에서 2년 임기(2010.7-2012.7)의 의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의 임기에 와서 IHP 8단계 전략계획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 전 7단계 사업은 ‘물 의존 : 압박과 사회적 대응에 대한 시스템 분석’을 주제로 ‘물 부족’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가 관여했던 8단계부터는 ‘물 안보^{Water Security}’로 주요 주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진행되는 IHP 8단계 사업은 '물 안보 강화 : 지역, 국가 및 국제적 난제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기 후 전임 의장^{Ex-officio}으로서 2년간(2012-2014) 부의장으로 봉직했고, 또 의장단으로서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의장으로, IHP 관련 각종 국제회의의 의장으로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 기여했습니다. 이것이 IHP에 한국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장 임기 중 4개의 카테고리 2 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이 보람찬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IHP 아태 지역 운영위원회^{Regional Steering Committee for Asia and the Pacific, RSC-AP}는 제가 창설을 하였고, 꾸준히 많이 참석해왔습니다. 2, 30년을 아태지역 회의에 꾸준히 참석하니, 동남아 지역에 한국 물 전문가가 갔다고 하면 그쪽에서 전부 제 안부만 물어요. 그래서 그만큼 인적인 네트워크를 많이 쌓은 것이 하나의 큰 보람이고 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뒤에 또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의 Governor로 선출되어 세계적 물 문제에 봉사하면서 2015년에 제7차 세계 물 포럼^{World Water Forum}을 저의 고향인 대구 경북으로 유치하게 됐던 점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내년에 국제 수자원 협회^{IWRA : 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Association}에서 제17차 세계 물 총회^{World Water Congress}를 대구에서 개최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미뤄졌는데요, 내년 9월에 코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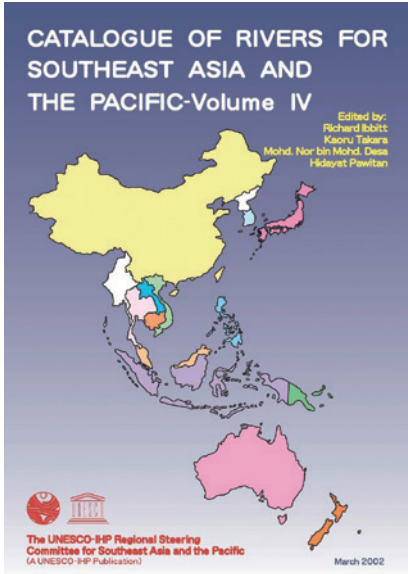
상황이 좀 나아져서 개최한다면, 수자원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노벨상에 해당하는 해당되는 상인 'Prof. Ven Te Chow Memorial Award'를 제가 아태 지역에서 최초로 받게 됩니다. 저에게 아주 큰 영광입니다.

IHP가 우리나라의 물 분야에 미친 영향과 역할

IHP한국위원회는 처음에 국토해양부 및 한국수자원학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어 왔으나 실질적인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는 법과 제도 등의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2011년 4월 국토해양부 훈령이 제정되면서 체계적인 활동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HP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 IHP 단계별 연구 결과 혹은 제안된 아이тем들이 우리나라 수문, 수자원 관련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또 IHP 주제들에 대해 수자원학회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국토부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해왔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IHP 관련 지역 협력체가 있습니다. 바로 1993년에 창설된 IHP 아태지역 운영위원회^{Regional Steering Committee for Asia and the Pacific, RSC-AP}인데, 제가 창설 멤버 중 하나입니다. RSC-AP는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된 아태 지역 '물 패밀리'^{Water Family}의 주요 지역 협력체로,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를 사무국으로 하여 총 17개 아태 지역 IHP 국가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 교수와 함께 RSC-AP를 창설했는데, 1차 위원장을 창설 멤버 중 최연장자인 일본 다카하



(3) 아태지역 강에 관한 카탈로그 IV편 (2002)

(3)

시 교수가 하고 저는 세 번째 RSC 의장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IHP 내 Cross-Cutting 프로그램으로, AP-FRIEND^{Asia Pacific Flow Regimes from International and Experimental Network Data}, AP-HELP^{Asia Pacific Hydrology, Environment, Life and Policy} 프로그램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AP-HELP에는 금호강 유역이 우리나라의 대표 HELP 유역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아태 지역의 중심 유역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국토부에서 5년간 연구 프로젝트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AP-FRIEND에서는 제가 한 워킹 그룹을 맡아서 우리나라 유역을 포함시킨 River Catalog를 제작했고 지금까지도 인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향을 미쳐온 IHP지만, 우리나라가 물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IHP한국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IHP 프로그램 내에 반 이상이 생태 문제나 수질 문제를 다루고 있고, 관할 중앙부처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IHP한국위원회 위원 구성을 강화하는 등 IHP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독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 분야에서 앞으로 유네스코가 나아가야 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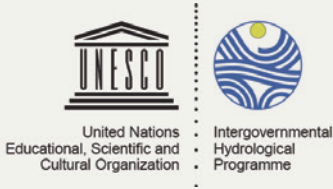
제가 IHP에 대해서 수자원학회를 대표해서 여러 가지 연구에 참여할 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도 IHP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유네스코

에서 IHP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6번인 깨끗한 물과 위생에 기여하는 바도 큼니다. IHP는 SDG 6뿐만 아니라, SDG 3 건강과 복지, SDG 5 성평등, SDG 12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등에도 관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30년까지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또, 물 안보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하천과 물에 대한 연구 및 투자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꼭 우리 인간에게, 우리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는 지역 간 물 문제 해결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물 문제 해결에 범국가적으로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인 i-WSSM도 적극적인 국가 지원 하에 물 안보와 지속 가능한 관리에 세계적인 중심이 되도록 하는 센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환경부에도 인식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이 IHP에 앞장서서, 아태 지역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IHP 활동을 하고 의장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유네스코 내에서 위상이 높아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힘껏 IHP에 대한 노력을 함은 물론 우리나라 물 문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또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간수문학프로그램

(IHP: Intergovernmental Hydrological Programme)



정부간수문학프로그램은 세계적 과제인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 관리를 위해 1964년 제13차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를 통해 마련된 190여 유네스코 회원국 간의 범세계적 수문수자원계획 프로그램이다.

1965년 국제 수문 10개년계획(IHD, International Hydrological Decade)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어 1975년에 국제수문학프로그램(IHP)으로 바뀌었으며, 각 나라의 하천 유역에 적합한 수문 해석 기법을 연구 조사하여 회원국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수자원 기술 발전 및 국제 기술 협력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IHP의 주요 분야는 물 연구, 관리, 교육, 역량 강화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이며, 유엔 기구 내 유일하게 물 관련 정부간위원회가 운영되는 사업으로, 30여 개 물 관련 UN 기구를 포괄하는 UN Water에도 참여하고 있다. IHP는 처음에는 '국제수문학프로그램'이었다가 2017년부터 '정부간수문학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바꾸어 활동하고 있다.

※ UN Water: UNDP, UNCTAD, ILO, UNEP, UNHCR UNIDO, UNHCR 등

※ 수문학(Hydrology)의 대상: 지구의 물을 연구하는 과학으로, 지표의 하천과 호수

그리고 지하수를 포함하는 물의 순환(hydrological Cycle) 및 그 분포와 수자원의 특성을 취급한다.

인문사회과학 활동



철학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다

이삼열

철학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다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독일유학 후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1982~2005)를 지낸 이삼열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2004~2008)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2000~2004), 한국철학회장(2007~2008),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2012~2015)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기동, 인문사회과학

유네스코 사업은 크게 교육, 과학, 문화로 구분됩니다. 그 중 과학은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둘로 나뉘어 있죠. 이렇게 보면 인문사회과학은 유네스코 내에서 4분의 1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유네스코는 평화의 이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인문사회과학적인 뒷받침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유네스코의 예산과 인력을 살펴보면, 많은 비중이 교육과 문화에 중심을 두고 있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7대 사무총장으로 취임을 하고 보니, 다행히 전임 사무총장이셨던 차인석 총장님과 김여수 총장님이 인문사회과학 사업을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철학 분야에서는 전 세계 어느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보다 충실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철학과 출신이고, 한국 철학회 회장을 맡기도 했기 때문에 제 임기 중에도 철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 철학

2004년부터 유네스코는 세계 철학의 날(매년 11월 셋째 주) 행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유네스코는 평화와 인권, 정의 같은 가치를 확산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철학적인 기초와 토대를 많이 닦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철학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

한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세계 철학의 날이 목표로 하는 것은 각 회원국에서 철학적인 이슈를 활성화하고 철학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시 우리 국민들이 반성하고 생각하는 철학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철학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한국철학회와 함께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철학 올림피아드라는 철학 논술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도 철학 활성화를 위해 전 세계의 학생들이 모여 특정 주제에 대해 한두 시간 안에 몇 페이지의 철학 논문을 쓰도록 하는 철학 올림피아드를 개최했는데요.

한국에서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후원을 해서,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세계 철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해 여러 번 상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상을 받은 작품은 한국에서 발표회도 하고, 국내 철학 올림피아드에는 유치원생도 참가하도록 해서 아주 어린 아이들도 철학적인 글을 써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가위원회로서 철학 분야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철학의 날의 배경과 성과

세계 철학의 날이 시작된 배경은 1995년 세계 철학자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철학을 유네스코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선언문을 낸 것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세계철학대회(World Congress of Philosophy)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철학이라는 것이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니까 대륙 혹은 지역별로 대화 모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국제철학대회(International Philosophy Dialogue)가 200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마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할 때였지요.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아시아와 아랍 지역의 철학 대화에 중점을 두고 대화 모임을 개최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통적인 서구 철학이 세계 철학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던 다른 지역의 철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서 아시아나 아랍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슬람은 거의 종교로만 생각될 뿐 철학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랍에서 발전시킨 수학, 물리학은 상당히 수준이고, 서구와 아랍 사이에 역사적인 발전에도 적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아랍에는 어떤 사상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인권이나 평화 개념은 조금 다를지언정, 오히려 그런 차이를 공유하는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2004년 11월 아시아-아랍 철학대회(International Philosophy Dialogue)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차인석 총장님이 참석했고, 중국, 일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이란, 이집트,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등이 참가했었죠. 그리

고 그다음 해인 2005년에 유네스코 창립 60주년 행사를 겸해서 경희대학교의 후원으로 아시아-아랍 철학대회(International Philosophy Dialogue)를 신라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당시 회의의 주제는 유네스코의 앞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What UNESCO for the Future?)를 철학적으로 진단하는 데 있었습니다. 철학 분야에서는 대체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주도해서 본부의 행사에 참석을 참석했고, 아시아-아랍 지역의 모임도 개최했습니다.

차인석 총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동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위한 철학자들의 모임이라는 것도 했었죠. 제 임기 중에도 지원을 했는데, 당시에는 오랫동안 참가해오던 한-중-일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나라들의 철학자들과도 함께 민주주의를 철학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대해서 모임을 계속하면서 책도 발간했습니다. 제가 한국철학회 회장이 되면서 2008년에는 세계철학자대회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세계의 철학자들을 초대하는 과정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큰 기여를 했지요.

사회변동관리 프로그램의

의미와 한계

사회변동관리 프로그램(Management of Social Transformation, MOST)라는 것은 남미나 아프리카, 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 이슈와 닿아있는 과제입니다. 식민지였던 개발도상국들이 1960년대에 와서 독립을 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 독재와 빈곤, 착취, 혁명의 악순환이



- (1) 2003년 제1회 대한민국 철학의 날을 맞이하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철학올림피아드 행사가 열렸다.
- (2) 2005년 11월 28일~29일 서울에서 유네스코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경희대학교, 한국정치사상학회가 협력하여 '문명간 철학대화: 아시아와 아랍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 (3) 1982년 9월 3일~4일 서울에서 '사회변동과 세대차이'를 주제로 연구세미나가 열렸다.

(1)



(2)



(3)



(4)

계속되었죠.

유네스코에서는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와 남미의 독립국들이 새로운 회원국으로 대거 진입하면서 총회의 분위기를 주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이런 신생독립국들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에 대한 대책으로 MOST를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유네스코가 혁명을 조장할 수도 없고, 제국주의 타도를 할 수도 없지만, 유네스코라는 기구 안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모두 모여 있으니까 그럼 사회적 변혁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우리가 관리해보자는 취지에서 관리(Management)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그렇게 MOST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부 간(Intergovernmental) 기구를 만들어 매년 모이다 보니깐 상당히 힘 있는 기관은 됐는데, 문제는 MOST의 결정을 여러 회원국들이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주로 중남미에서는 열심히 했지만, 아시아는 아시아만의 차이가 또 있다 보니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지만 형식적인 대화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회원국마다 사회적 환경과 맥락, 사정이 너무 달랐던 것이죠.

한국은 이제 개발도상국들을 도와야 하는 선진국 입장이 되었죠. 우리가 북한과 중국, 일본 관계가 너무 복잡한 나머지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동남아시아의 인문사회과학계는 한국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MOST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남아 국가의 사회학자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아 사회과학자들과 1982년부터 모임을 계속했습니다. 학

(4) 2008년 9월 8일-9일
서울에서 제2회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
(기억의 공유와 다원적 보편성)
이 열렸다.

생 민주화운동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회과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네트워크를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데 유네스코가 연결되면 아시아의 의미 있는 MOST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역사화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한 가지 더 중점을 두었던 것은 역사화해 문제였습니다. 한 일 관계가 교과서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해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해서 역사 왜곡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사실 유네스코는 2차 대전 이후에 독일과 프랑스 간의 공동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고,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굉장히 긴장되었던 관계

를 풀어나가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유네스코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 간의 역사 화해를 도모하고자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을 새롭게 기획하여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개최했었죠. 그리고 이 포럼의 결과가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 간 상호이해와 화해를 위한 실천의 장으로 이어지면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 NGO 대회로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진행했던 유럽의 역사 화해 경험을 동아시아에 가져온 것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공헌이고 기여였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새로운 과제, 한반도 평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사를 돌로 나눈다면 저는 1950년부터 1990년까지를 첫 번째 시기로, 1991년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뒤부터 지금까지를 두 번째 시기로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고 1996년 OECD에 가입하는 등 우리나라는 큰 경제적 성장을 이루면서 도움을 받은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중점은 개발도상국이 지속 가능한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한과 어떻게 평화적인 관계 속에서 공존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을지를 찾는 것이 앞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향후 2~30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의 한계와 도전

권태준

유네스코의 한계와 도전

권태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1990년대 이후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제 교류와 해외 교육지원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권태준 서울대 명예교수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제15대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공여국으로서의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카테고리2 센터인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설립을 이끌었다.

한국 속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그리고 세계 속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6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업들은 대학 교수로서 상당히 의욕을 일으킬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제 전임자와 후임자가 모두 철학 교수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교육, 과학, 문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하는 유네스코라고 하면 지식인 누구에게나 인생을 바치기에 적절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상당히 많이 호소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심지어 국무총리실까지 찾아가 정부의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에 가서 다른 나라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사정을 듣고 보니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제일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안에서는 유네스코한국위가 아주 어려운 형편인 줄 알았는데, 국제적으로 보니 제일 규모가 컸던 것이죠.

유네스코 회의에 가게 되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국가의 대표들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유엔 기구 중 유네스코에서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구나 싶었지요. 이후로는 한국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자존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요 관심사는 국제적인 규범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이었지만, 국제회의나 아태지역회의 등을 우리가 주관해서 많이 열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

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에 유네스코를 알리고, 전 세계 특히 개발도상국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네스코의 한계와 도전

회원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는 교육, 과학, 문화를 위한 유엔의 전문기구죠. 그런데 알다시피 교육, 과학,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정치적인 영역이잖아요. 어떤 기관이든 정치적인 이해득실이 없는 국제기구는 회원국 정부들이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4년 간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점점 교육, 과학, 문화를 주제로 국가 간 협력을 하는 것이, 어쩌면 교육, 과학, 문화를 스스로 실행하는 개인들이 국제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자나 문화인들, 또는 과학자들은 학회 등을 통해 아주 열심히 새로운 얘기를 하면서 만나곤 합니다. 특히, 잘사는 나라가 될수록 사람들은 스스로 국제적인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면 오히려 그 분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정부는 이런 분야에 대해 걸어서는 국제관계 속에서 큰 관심이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실상은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큰 관심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활동하던 1990년대 후반에도 미국은 가장 활동적이지 않은 유네스코 회원국이었습니다.¹

1950년, 한국이 유네스코에 가입한 후 그 초창기에, 한국 사회에서 유네스코가 평

1. 미국은 1983년 12월 31일에 유네스코를 탈퇴하고 2003년 10월에 다시 가입하고, 2018년 12월 31일에 다시 탈퇴했다.



(1)

- (1) 서울 명동에 건립된 높이 11층의 유네스코회관은 1967년 완공된 이래 현재까지 국내 유네스코 활동의 든든한 거점역할을 해오고 있다.
- (2)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제5차 유네스코 총회 (1950.5.22-6.17)의 모습이다. 한국은 1950년 5월 25일 일부 공산국가의 반대 등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거수 표결 끝에 유네스코 가입이 확정되었다.



(2)

장히 갑작스럽게 유명해졌습니다. 유엔 기구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이 정규 회원국으로 참여한 기구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름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는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면서부터 국내에서 유네스코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제 활동이 경제, 정치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오히려 교육, 과학, 문화 쪽은 점점 정부가 등한시하는 경향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라고 하면 비정치적인 기관이지만 정부의 관심이나 지원이 없다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해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육, 과학, 문화에 관해서 다른 회원국들 및 유네스코와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는 아직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조금 더 정부와의 관계를 활성화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너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교육, 과학, 문화 영역에서는 정치적인 간섭이 된다고 반발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너무 지원을 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과학계, 윤리적 성찰에 더욱 힘써야

송상용

과학계, 윤리적 성찰에 더욱 힘써야

송상용

한림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전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위원회



송상용 교수는 서울대 화학과, 철학과를 거쳐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과학사·과학철학을 공부했고 성균관대(조교수), 한림대(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객원교수), 한양대(석좌교수) 등에서 가르쳤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위원을 맡았으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연과학분과위원장, 인문사회과학분과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림대 명예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으로 있다.

유네스코와 처음 인연을 맺은 계기

유네스코와 나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사업 분야에 과학 분야를 넣는 데 크게 기여한 줄리언 헉슬리^{Julian Huxley} 초대 사무총장과 조지프 니덤^{Joseph Needham} 초대 과학 부장은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름을 알고 있던 유명한 생물학자들입니다. 1959년 화학과를 졸업한 나는 이듬해 철학과 3학년에 학사편입한 뒤 한국과학사학회와 한국휴머니스트회 두 학회의 창립 회원이자 간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국휴머니스트회 회장 헉슬리, 합리주의출판회 회장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과 교류하게 되었고, 헉슬리의 책을 읽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글을 썼습니다. 니덤은 1974년 일본에서 열린 국제과학사회의에서 만났습니다. 1952년 북한과 중국이 제기한 세균전을 조사하는 국제 과학조사위원으로 평양에 간 적이 있던 니덤은 중국과학사학자로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30년 동안 니덤과 나는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유네스코에 한국이 가입한 것이 1950년이고, 한국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1954년이지요. 당시 교육이나 문화 쪽에 비해 과학 분야 활동이 잘 보이지 않던 때였는데, 이 셋을 연결시킨 것이 유네스코였습니다. 80년대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발간한 영문 학술지 『코리아 저널』^{Korea Journal}에 과학사 분야의 글을 두 번 투고했고, 1989년부터 5년 동안 편집자문위원을 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발간한 Impact of Science on Society의 한글판인 『과학과 사회』도 냈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죠. 1981년에는 유네스코에서 ‘현대사회와 과학기술’이라는 주제

로 학술회의를 했어요. 거기에서 내가 ‘과학과 사회에 관한 해외 연구의 배경과 현황’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이 한국에 소개되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어서 ‘중·고등학교 과학교육에 과학과 사회를 도입하는 방안’이라는 프로젝트를 맡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1995년에는 베이징에서 중국, 일본, 한국이 참여한 동아시아생명윤리학회^{East Asian Association of Bioethics}가 발족했습니다. 윤리학 전공이 아닌 내가 홀로 참석하게 되어 1998년에는 한국생명윤리학회가 태어났고, 이후 동아시아생명윤리학회는 아시아생명윤리학회^{Asian Bioethics Association}로 발전했습니다. 1998년에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mission Mondial d'Éthique des Connaissances Scientifiques et des Technologies, COMEST}가 출발했습니다. 2004년에 내가 한국에서는 첫 번째로 위원이 되었고, 이듬해에는 부위원장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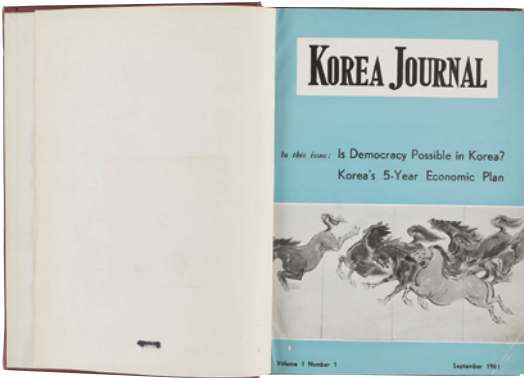
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에서의 활동

유네스코에서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 IBC}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나온 COMEST는 생명윤리 이외의 과학기술윤리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명윤리위원회에 견주어 중요도도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졌고, 위원 수나 예산도 절반이었습니다. IBC는 ‘생명윤리와 인권보편선언’ 등 중요한 선언을 여럿 발표했지만 COMEST는 별로 중요한 성과를 못 냈어요. COMEST의 관심은 정보기술윤리에서 시작해 담수윤리, 외계윤리, 핵기술윤리, 나노윤리, 기후변화윤



(1) Korea Journal은 1961년 9월 한국 문화를 학술적 차원에서 해외에 소개하고, 해외의 한국학 연구를 지원할 목적으로 창간되었다. 초기에 정치, 경제, 외교 현안 등 시사지 성격을 띠다가, 80년대에 이르러 대표적인 한국학 학술지로 성장하였다. Korean Journal은 국내외 한국학 학자들에게 좋은 발표의 장으로서, 해외 유학생 및 교포들에게는 중요한 참고자료 구실을 해왔다.



(1)

리까지 다양했습니다. 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나는 아프레시안(Ruben Apressian, 러시아), 하팅(Johan Hattingh, 남아연방) 위원과 함께 환경윤리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Environmental Ethics and International Policy(2006)이 발간됐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윤리강령 제정에도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당시

부시 정부 때 미국의 COMEST 위원은 지구 온난화를 부인하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었어요.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표준 설정(standard setting)을 하지 말자고 했어요. 마츠우라(Koichiro Matsuura) 사무총장은 일본 출신이라 미국의 뜻을 무시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사무국에서 고민을 하다가 1974년 유네스코에서 과학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을 기초로 이를

선언으로 발전시켜 보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내가 그것을 읽고 신랄한 배경논문 Song Sang-yong. "Reactions on the UNESCO Recommendation of 1974," 2006을 썼습니다. 1930년대의 낡은 과학관을 반영해 만든 1974년의 유네스코 권고는 너무 고칠 것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이 배경논문을 가지고 뉴델리, 방콕, 서울, 벨로 오리손치에서 자문회의를 한 결과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결론이 나왔어요. 자문회의를 아랍지역, 아프리카 쪽으로 확대해 윤리강령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다가 내 임기가 끝난 것입니다. 그 이후 상황을 알지 못하다가 최근 구글을 통해 검색해 보니 2017년에 유네스코 권고의 수정 작업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편 한국에서도 과학기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2002년에 내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과학기술인 헌장 제정에 관한 연구' 라는 프로젝트를 맡아 보고서를 냈습니다. 과학기술자 윤리강령 시안을 만들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과총)이 공동으로 과학기술자 윤리강령을 만들자고 과학기술부에 제안했어요. 그런데 과기부에서 그것을 과총에 맡겼어요. 과총은 인사치레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림원을 협력 기관으로 집어 넣었지만 실제로는 단독으로 연구윤리강령 비슷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과학기술자 윤리강령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유네스코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유네스코가 태어난 해가 1946년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에 가입한 것이

1950년 6월 11일이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2주일 전에 유네스코 회원이 되었지요. 우리는 분단국이어서 유엔에 가입을 못했기 때문에 유네스코가 유엔을 대신해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 세계에서 국가위원회가 한국처럼 규모가 크고,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 없을 겁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1954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에 잿더미에서 출발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형편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한국의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과학도 빠지지 않았 습니다. 생물다양성 같은 새로운 주제를 열어 주고, 미생물학과, 해양학과를 만드는 기초를 닦아 주기도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연결하는 간학문적인 interdisciplinary 활동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7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올라갔고, 교육·과학·문화 분야에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유네스코가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이 더욱 창조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2)

(2) 2009년 6월 19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기상청이 공동주최한 제1차 기후변화윤리 포럼. 기후변화 문제를 윤리적 측면에서 다루는 행사로는 국내에서 처음 열린 이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윤리'라는 낯선 개념을 국내에 소개하고, 기후변화가 왜 윤리적인 문제인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3) 2017년 11월 13일 제3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기후변화 윤리 원칙선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윤리적 관점을 고려하고 연대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선언이다.

(4) 2017년에 채택된 '과학 및 과학연구자에 관한 권고'는 1974년 '과학연구 종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개정한 것이다. 이 권고는 과학을 수행하는 윤리적 원칙과 과학연구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4)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

(COMEST: World Commission on the Ethics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y)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기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1998년에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World Commission on the Ethics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y, COMEST)를 창립했다. COMEST에서는 선진 연구자와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식수, 에너지, 정보사회에 관련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현재는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우주 개발 등과 관련한 윤리적 이슈들을 점검하고 과학자들을 위한 윤리교육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생명윤리위원회

(IBC: 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



과학의 발달로 인체실험, 안락사, 장기 이식, 시험관 아기, 배아 줄기 세포 연구 등이 현실화되며 인류가 직면한 윤리적 문제들을 다루는 생명윤리와 관련해 유네스코는 199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국제생명윤리위원회(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 IBC)와 정부간생명윤리위원회(Intergovernmental Bioethics Committee, IGBC)를 각각 1993년과 1998년에 개설했다. 위원회는 생명윤리와 관련한 국제적인 기준과 규범을 제정하고 정부 정책에 조언을 제공하며, 전문가와 정부간 대화를 촉진하고 있다.



청년 사업의 핵심은 '목소리를 듣는 것'

전성민

청년 사업의 핵심은 ‘목소리를 듣는 것’

전성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이사장,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협력사업본부장



전성민 이사장은 2009년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20여 년간 근무하며 청년사업의 역사를 함께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무처장, 고양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청년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배경

1950년대에 유네스코는 '신생활 교육'을 주창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칩니다. 1954년 과테말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추진된 우리나라의 유네스코학생건설대 활동도 이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청년들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축적해 온 유네스코에 유엔은 1960년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요청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나타나는 청년문화의 변화에 정부 간 기구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컸던 것이죠. 청년에 대한 유엔과 유네스코의 이러한 관심과 노력은 1964년 세계청년 전문가회의의 결과보고에 기초하여 1965년 12월 유엔의 「청년의 평화이념 및 국민 간 상호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언」 채택으로 이어집니다. 이 선언문은 “청년을 국제적 이해와 협력 및 평화의 정신으로 교육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역할과 기여를 인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85년 유엔이 정한 '세계청년의 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유네스코가 유엔 시스템 내에서 청년정책과 사업을 담당할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사업의 태동

1964년 13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청년활동지원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하고 1965년 3월에는 '아시아지역청소년전문가회의'(동경), 1965년 5월 '청소년문제연구협의회'(춘천) 등 지역과 국가차원에서 권고안 추진을 위

한 회의들이 잇따라 개최됩니다. 1960~70년대 한위의 청년사업을 돌이켜보면, 여섯 개 항의 총회 권고안을 근거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고는 각종 비정부 청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적절한 조치와 활동을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고에 따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초창기에는 사무실도 한위가 제공해 유네스코 회관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 권고는 청소년들이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여가를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진행했던 사업이 유네스코학생회 활동지원과 근로청소년연수과정 등입니다.

청년지도자 및 교육자의 훈련 강화를 요청한 세 번째 권고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지도자연수가 진행됐고, 청년활동에 필요한 건물과 시설 확충이라는 다섯 번째 권고를 바탕으로 경기도 이전에 유네스코청년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 역시 유네스코의 권고를 근거로 하여 청년원 건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원에서는 청년활동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출판·보급했고, 『새물결』이나 『보람 있는 대학생활』, 『학생문화연구』, 『유네스코클럽지침서』 등을 발간해 청년활동 관련 정보수집과 제공의 중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권고는 각국 국가위원회 내에 청년활동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학생활동지도교수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훗날 국무총리, 대학 총장 등을 역임하셨던 이영덕, 현승중, 정원식, 이기영 교수님 등이 모두 이 협의회에 참여하셨습니다.



(1)

- (1) 새물결 제1권 제3호 (1966.4.1.) 국내 각 대학 유네스코학생회 (KUSA)의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1966년 창간된 소식지이다. 필자와 편집자가 모두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대학생이 만드는 유일한 대학 잡지'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유네스코학생회 지부 소식을 공유하고, 대학생들, 사회참여, 청년 문제 등 당시 많은 대학생들의 관심사와 사회 이슈를 담았다.
- (2) 1971년 제12기 유네스코 학생지도자 교육과정 현장. 유네스코는 KUSA 참여학생들의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훈련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한국 청년활동과 유네스코청년원의 역할

청년원에서 진행한 연수사업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청소년활동지도자를 위한 연수였습니다. 이 연수과정은 청년활동지도자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이 드물었던 1970년대에는 획기적인 시도였고, 유네스코청년원은 청년과 청소년활동의 중심으로 전국적인 유명시설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유네스코나 유엔이라는 국제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새롭고 풍부한 정보와 가치,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개발됐다는 점도 청년원의 위상을 높인 또 다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1980년대에 들어서는 유네스코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같은 유엔 산하기구에서도 아태지역의 청년활동을 추진할 때는 파트

너 기구로서 유네스코청년원을 가장 먼저 꼽을 만큼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활동의 차별점

우리나라가 1991년 유엔에 가입하기 전까지 유네스코는 국제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창구였습니다. 구소련과 수교를 맺기 전인 1977년에 소련을 공식 방문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규택 사무총장의 근황이 각 일간지에 대서특필된 사실만 보아도 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우리나라의 국제화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자연히 유네스코 이념을 보급하기 위한 한위의 활동들은 큰 사회적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국제활동이라는 부분 외에



(2)

특정한 단체나 기관의 설립목적이나 정책, 그리고 종교적·사상적 배경에 치우치지 않고 청년사업을 펼쳤다는 점도 한위 청년사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정부단체나 종교법인, 공공기관 등 당시에도 청년활동을 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위는 특별한 이해관계 없이 청년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국내 청년활동 분야에서 중추적인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학생회
(Korea UNESCO Student
Association, KUSA) 활동**

청년들의 주도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KUSA는 청년활동역사에서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한위가 KUSA의

설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KUSA는 한위보다는 당시 유네스코활동에 참가했던 청년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한위는 KUSA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의 주도성', '청년의 대표성', '청년의 국제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고, 학생회를 지원하되 통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 학생활동이 시작된 지 60여년이 지난 지금도 청년의 주도성, 대표성 강화가 논의되는 것을 보면 새삼스럽게 유네스코 청년활동이 상당히 앞서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대사를 되돌아보면 청년들의 활동에서 민주화 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권위주의 정부와 청년 간의 관계에 따라 한위의 청년 사업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에 이른바 황금기를 구가했다고 할 수 있는 한위의 청년사업이 1980년대로 이어지지 못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1970년대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정부의 청년, 청소년 정책의 파트너로 일정 부분 인정을 받았고 소통도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이 폭압적으로 진압되면서 청년과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제5공화국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정권 차원에서 이들의 시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1960-70년대 학생운동이 어느 정도 정권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삼선개헌을 반대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비판했던 것과는 질적으로 달라진 것이죠.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한위와 KUSA의 청

(3) 1965년도 유네스코학생회(KUSA) 회의 모습. 유네스코학생회는 대학에서 유네스코 이념을 전파하고 건강한 대학문화를 만들기 위해 창설되었다. 유네스코학생회는 1965년 전국 13개 대학에서 'KUSA'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3)

년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1년에는 서울의 한 대학 KUSA 신입생 배움터에서 당시 정부가 금서로 지정한 도서를 읽고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유네스코청년원장이 해직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한위가 청년사업 초기부터 어렵게 유지하여 왔던 청년의 주도성과 대표성의 보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는 정치·사회적 변화를 설명합니다. 정부와 청년 사이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 자리가 좁아진 것이지요.

이후 1982년 제5공화국 정권의 학원 녹화사업을 기점으로 청년활동 지원부서인 협회과의 부서장과 대학생활동 담당간사가 인사 조치 되는 등 청년사업이 심각하게 위축됩니다. 이 시기 청년활동은 비단 한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청년정책의 심각한 후

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1980년대 말 해외여행의 자유화와 함께 청년원의 국제활동 역량이 인정받으면서 한국청년해외봉사단 등 청년의 국제활동이 점차 활성화되었고, 1990년대 본격적인 세계화 바람을 타고 '국제자원활동'이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청년사업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를 통과하면서 얻은 KUSA의 내상과 한위의 신뢰관계 손상은 너무 심각해서 아직도 복원이 덜 된 상태입니다.

청년 활동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청년정책과 사업은 청년의 전반적인 삶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육, 과학, 문화, 정보·커뮤니케이션 등 유네스코가

(4) 2019년 8월 12일
 세계 청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를 맞아 청년들이 서울 명동에서 기후정의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4)

다루는 주요 이슈들이 모두 청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사업이라고 해서 청년 이슈만을 따로 분리해서 다룰 필요도,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뜻이지요. 예전에는 유네스코가 다루는 이슈가 너무 넓다는 것이 불리하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바야흐로 융합 사회를 맞아 청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유네스코 사업의 다양성은 큰 자산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사업은 무엇보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획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갈증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국제활동 경험이라고 봅니다. 경제적, 사회적 여유와 환경이 마련된 청

년들은 국제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여전히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제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굳이 해외를 나가지 않더라도 세계시민의식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청년들이 좀 더 넓은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만남과 관계 속에서 감동을 얻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 분야와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실험과 도전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사업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미래
정우탁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사업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미래

정우탁

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사업본부장



정우탁 전 원장은 1982년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30년간 재직하며 기획실장·협력사업본부장·정책사업본부장을 역임하고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도 근무했다. 2012년부터 6년간 제4-5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을 역임했다.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사업의 변화

초창기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이 유네스코 활동의 중심이었죠. 인문사회과학 사업이 비로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아프리카와 남미 등의 신생국들이 유네스코에 대거 진입하면서 1970년대부터 '발전'^{Development}에 대한 문제가 유네스코의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고, 인문사회과학 사업이 발전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후 1990년대에는 세계화가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면서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평화와 인권 같은 보편가치^{Universal Value}나 보편윤리^{Universal Ethics}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문사회과학 사업의 시작, 세계로 열린 창

큰 틀에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인문사회과학 사업도 유네스코와 유사한 경로를 거쳐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뚜렷한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70-80년대에 접어들어 유네스코가 다루는 선진적인 인문사회과학 이슈들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서서히 관련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70-80년대 한국은 권위주의 정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민감한 이슈들을 모두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제 선택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죠.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선택한 방식

은 국제사회의 이슈를 국내 상황에 맞게 맥락화^{Localization}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이나 '자생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 같은 이슈는 새마을운동과 연결 고리를 만들어내고, '이주'^{Migration} 문제는 해외 교민 연구, 평화는 한국의 평화 사상 연구 등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국내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국제사회의 담론들을 국내에 소개하고자 했죠.

그 시절에는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지만, 각종 국제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물리적인 거리였습니다. 지금처럼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수단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보다는 태국에 위치한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와 협력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방콕사무소가 제안을 하고 한위가 받아들이는 형태였죠. 1980년대에 다뤘던 여성 이슈나 1990년대 초에 다루었던 신흥공업국의 구조조정 문제는 방콕사무소가 제안하여 한위가 추진한 대표적인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사업들이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패턴은 이미 197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1975년에 유네스코 방콕사무소가 아시아사회과학연구협의회^{JAASSREC}를 만들고, 1976년에 유네스코한위는 한국 사회과학연구 협의회^{KOSSREC}를 만듭니다. 한국 사회과학연구협의회에서는 한국 사회과학 저널인 Korea Social Science Journal이라는 영문 학술지를 만들었는데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진 학술지였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

회는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의 초기 활동 기간 동안 유네스코 회관 내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Korea Social Science Journal 발간 비용을 지원하는 등 행정, 재정, 공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협의회가 90년대 독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한국 사회과학자들이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지원을 비롯한 국내외 사회과학 학자 간의 교류사업은 당시 미국 사회과학에 경도된 측면이 없지 않았던 국내 학자들에게 아시아와 유럽의 새로운 시각과 개념, 학설, 방법론 등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사회과학계의 주요 인사 사이에서 나름의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y}를 형성하게 유도했던 것도 보이지 않는 성과였다고 봅니다.

**1990년대 세계화 시대의
인문사회과학 사업 - 관용,
인권, 철학, 역사이해**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새롭고 낯설지만 민감한 주제들을 조심스럽게 다뤄나가기 시작합니다. 일례로 1993년에는 초국적 기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다국적 기업 이슈를 전면에 걸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과감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주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주제를 시의적절하게 포착하여 논의의 장을 만들되 논쟁의 어느 한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시각을

한데 모아내는 방식의 접근을 취했죠.

1990년대 중반으로 오면서는 전 세계적으로 탈냉전 분위기가 무르익고 지구화 시대에 대한 논의가 무성해집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내에서도 평화와 철학 등에 대한 국제 세미나가 인문사회과학 사업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죠. 마침 1993년에 부임한 당시 차인석 사무총장도 철학교육과 가치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1994년에 민주주의와 관용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으며, 관련 책자를 발간해서 '관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국내 사회에 소개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관용이라는 단어를 어렵지 않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관용이 무슨 의미인지 상당히 낯설어했습니다. 이후 1995년에는 아태지역 민주주의를 위한 철학교육 네트워크^{APPEND}와 아태지역 국제교육 및 가치교육 네트워크^{APNIEVE}를 발족시켰습니다.

역사교육 분야의 사업은 지금 돌이켜 보더라도 큰 의미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1996년에 부임한 권태준 사무총장의 주도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1997년 9월 유네스코 독일국가위원회와 함께 21세기 역사교과서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사업 기획 당시에는 독일, 프랑스, 폴란드, 중국, 일본 국가위원회와 공동 개최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일본 국가위원회가 거절했죠. 그래서 한국과 독일 국가위원회, 게오르크 예케르트 연구소가 주축이 되고, 프랑스, 폴란드, 중국 국가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한 학자들과 개별적으로 초청한 일본 학자들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유



(1)

(1) 1984년 1월 30일-31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으로 '한국 사회의 자생적 발전'을 주제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2)

(2) 1991년 6월 25일-28일
서울에서 '신흥공업국의 경제 구조 조정과 사회문화 변동에 관한 유네스코 세미나'가 열렸다.



(3)

(3) 1993년 12월 3일
'새로운 세계 경제의 방향과 초국적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

- (1) 1997년 9월 24일-25일 서울에서 '21세기를 위한 역사교과서에 관한 유네스코 포럼'이 열렸다.
- (2) 1999년 12월 1일-4일 서울에서 '동북아 인권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 (3) 유네스코는 2020년 3월 24명의 인공지능(AI) 윤리 국제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시윤리 권고(안)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내년 두 차례의 정부간회의를 거쳐 2021년 하반기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AI 분야의 첫 번째 국제규범을 채택할 예정이다.



(2)



(3)

렵의 역사화해 과정을 동아시아에 소개하고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을 풀어가는 물꼬를 열어준 이 사업은, 2000-2010년대에 동아시아 역사화해 국제포럼(2007-2011)과 동아시아 청년역사대학 프로그램(2012-2016)으로 발전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이후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흐름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공동으로 1999년 12월 동북아 인권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권교육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2000년 7월 초·중등 교원 대상으로 인권교육 워크숍, 2001년 과학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 2002년 갈등해결을 위한 평화교육·인권교육 워크숍을 개최하여 인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인권 분야에 대한 한위의 역할은 이전과 같지 않았지만, 초창기에 인권을 우리 사회의 화두로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한위의 역할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와 2000년 한위의 인문사회과학 사업이 전성기를 누렸던 것은 당시 한위를 이끈 사무총장들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인석(1993~1996), 권태준(1996~2000), 김여수(2000~2004), 이삼열(2004~2008) 사무총장은 모두 철학, 사회과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져 한위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줬습니다. 이런 점들을 돌아보면 유네스코한위 사무총장의 리더십이 인문사회과학 사업의 추진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 사업의

성과와 나아갈 방향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의 성과는 보편윤리^{Universal Ethics}를 전 세계가 고민할 수 있도록 이끌어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990년대 유네스코가 보편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과연 서로 다른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전 세계의 국가에서 보편윤리의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인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10년, 20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이제 인권에 관해서는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평화와 지속가능발전 등에 대한 개념도 점차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국제기구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유네스코 본부의 예산이나 조직을 살필 때, 인문사회과학 사업을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발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 유네스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개혁·개편 작업을 추진해서 인문사회과학 사업과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인문사회과학 사업이 어떻게 유네스코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제

세계는 본격적으로 21세기 새로운 미래 사회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생명과학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류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불확실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죠.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인문학적 성찰에 대한 갈증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망망대해 속에서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비춰주는 등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 지성들을 한데 모아 건강한 미래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업이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이 마땅히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가 전문적인 연구에 집중하는 대학이나 연구소는 아니죠. 그렇다고 정책을 수립해 직접 집행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어쩌면 미래 담론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유네스코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소위 ‘플랫폼’으로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를 연결하고 그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데 있어 누구보다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문사회과학 사업이 나아갈 방향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가 유네스코 본부를 따라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옛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21세기 유네스코의 모델은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네스코는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죠. 오히려 돌파구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같은 건설하고 역량 있

는 국가위원회에서 예산도 적극적으로 부담하고 새로운 미래 글로벌 의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 차원에서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담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을 수 있어야겠죠. 이럴 때 한국 정부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신탁기금 등의 형태를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런 플랫폼에서 21세기 전 지구적 의제를 발굴해내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달성이 2030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POST-SDGs 의제 발굴 위원회를 만들어 SDGs 이후의 담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네스코라는 브랜드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기구를 활용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한다면 정부나 기업 등의 예산을 끌고 오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국이 먼저 시작하고 우리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선도적인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나 세계적인 연구소 등을 찾아 힘을 모으고, 그렇게 모아진 힘으로 유네스코를 견인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1980, 1990년대 유네스코는 한국 사회에 국제사회의 앞선 새로운 개념을 많이 제공해줬습니다. 자생적 발전, 디아스포라, 관용, 인권 등 개념 자체가 생소한 것들이었습니다. 1980년대를 돌이켜보면 유네스코에서의 출판물들이 한국 사회보다 10년, 20년은 앞서 있었죠. 당시에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빠르게 발전, 변화하면서 그

간격은 많이 좁혀졌습니다. 지금은 유네스코에서 진행되는 담론들이 우리 사회와 거의 맞닿아 있거나 오히려 한국 사회가 유네스코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최근 유네스코 인문사회과학의 아젠다 중 인상 깊었던 것은 인공지능⁴윤리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주제는 일부 개발도상국에는 아직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국은 이런 논의를 함께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수준에 와있지 않나 싶습니다. AI윤리는 기본적으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융합적 성격을 가진 아젠다입니다. 유네스코에서 말하는 과학은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모두 포괄하고 있죠. 저는 앞으로 유네스코의 가치는 전혀 서로 다르게 보이는 영역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기념

찾아가서 듣는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과학 활동 이야기

초판 1쇄 인쇄 2020년 12월 18일

초판 1쇄 발행 2020년 12월 18일

기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은이 이승환 허형택 박용안 이순탁
이삼열 권태준 송상웅 전성민 정우탁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김광호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자우편 sc@unesco.or.kr
홈페이지 www.unesco.or.kr

편집 김은영 김명신 최연수
교열·윤문 허예슬
디자인 그래픽바이러스(graphicvirus.com)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0

ISBN 979-11-90615-12-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SC-2020-BK-3

이 책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기획하여 2020년도 교육부의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동 출판물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할 때에는 유네스코(UNESCO Open Access Repository) (<http://en.unesco.org/open-access/>)의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9 781190 615129

ISBN 979-11-90615-12-9